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정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성의 사회적 억압에 대한 오브제의  
시각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정 화 정

여성의 사회적 억압에 대한 오브제의  
시각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정 정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정 화 정

# 인 준 서

정화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본인이 2017년부터 작업한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결과 보고이다. 본인은 ‘동시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여성’에 주목하고 작품을 통해 여성이 현대사회에서 경험하는 강요와 억압을 표현했다.

여성과 남성은 강요와 억압의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불편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억압은 갑을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남성 보다 여성이 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갑을 관계는 가족과 연인처럼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또는 불특정 다수까지 나타난다. 그리고 이 관계는 힘과 권력을 가진 갑이 여성을 포함한 자신보다 약자인 을과 을의 환경까지도 조종하려 한다. 그 결과 힘을 가진 한 쪽이 강요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억압이 신체와 일상, 그리고 일상에서 쓰는 물건, 여성의 경우는 여성이 쓰는 여성용품에서도 드러난다. 본인은 이와 같은 사회에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꼈다. 본인은 강요와 억압이 갑과 을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 사회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의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으로 살면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작업에 등장시켜 묶여진 여성의 신체, 오브제를 피하려는 놀이, 반복적인 패턴과 색채로 표현되었다.

본 논문은 2017년에 작업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에 대한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첫째, 본인이 받은 여성의 억압을 시몬느 드 보부아르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발트라우트 포슈의 사회적 견해를 통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미셸 푸코가 주장하는 사회 감시망 체계의 견해를 통해 신체를 억압하는 일상 생활용품과 여성용품에 대해 서술하여 작품형성배경을 설명하였다. 둘째, 본인

작품에 등장하는 묶여진 여성의 신체, 신체 위로 지나가는 텍스트, 여성용품이 등장하는 게임, 놀이와 반복적 패턴, 색채 표현을 통해 억압에 대한 시각적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작품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 형성 배경	3
1) 현대사회와 여성의 규율화	3
2) 신체를 억압하는 여성용품	5
2. 작품 표현 방법	7
1) 테이프를 이용한 신체 억압의 표현	7
2) 여성을 공격하는 오브제와 저항하는 행위	9
3) 놀이와 반복적 패턴, 색채	11
3. 작품분석	13
III. 결 론	34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1, 인화지에 프린트, 59.4x84.1cm, 2017.....	13
【작품 2】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2, 인화지에 프린트, 59.4x84.1cm, 2017.....	15
【작품 3】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3, 인화지에 프린트, 59.4x84.1cm, 2017.....	17
【작품 4】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4, 캔버스에 프린트, 100x150cm, 2017.....	19
【작품 5】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5, 캔버스에 프린트, 128x72(cm), 2017.....	21
【작품 6】 Run like a girl, 단채널영상, 2분55초, 가변설치, 2017.....	24
【작품 7】 Text Attack, 단채널영상, 3분49초, 가변설치, 2017.....	27
【작품 8】 be safe, 콘돔, 가변설치, 2017.....	29
【작품 9】 Red Jungle, 캔버스에 수채, 실, 2017.....	31

# I. 서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는 평등의 권리가 있다. 이 사회에서 불평등한 것은 뉴스와 기사로 이슈화되어 오르내릴만큼 평범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남성보다 평등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사회는 여성에게 억압과 강요의 태도를 가진다. 사회가 여성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제2의 성』에서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이 세계는 언제나 남성의 소유였다.”<sup>1)</sup>고 말하면서 남성들이 장악한 경제적, 신체적, 특권과 그들이 만든 사회적 가치의 관습 아래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종속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sup>2)</sup> 본인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보부아르가 이야기하는 억압을 경험하여 여성의 일상생활 깊숙이 억압이 스며든 사회적 원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별히 본인은 일상생활용품과 여성용품을 주목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일상생활용품과 여성용품은 본인의 주변에 항상 있으면서 본인을 여성으로 정체성을 억압시키는 오브제로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 본인은 사회와 여성인 본인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과 불편함을 표현한 작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억압이 여성용품과 일상용품으로 은유된 오브제와 그리고 억압을 거부하는 신체 행위를 사진과 영상, 설치로 구성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형성 배경, 표현 방법, 작품 분석으로 연구를 하였다.

---

1) 시몬느 드 보부아르, 『제2의성』,이희영 옮김, 동서문화사, 2009, p.89

2) 시몬느 드 보부아르, 앞의 책, p.180-186

첫째,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발트라우트 포슈(Waltraud Posch)가 말하는 여성이 억압된 원인을 바탕으로 본인이 본 논문에서 다룬 여성의 억압과 그 억압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감시와 처벌』에서 설명하는 감시 체계를 통해 현대 사회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억압을 상징하는 일상생활용품, 여성용품의 오브제와 저항하는 신체 행위, 놀이 요소와 반복적 패턴, 색채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작품의 의미와 제작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 Ⅱ. 본 론

### 1. 작품 형성 배경

#### 1) 현대사회와 여성의 규율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주변 사람과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하지만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이와 같이 여성을 평등하게 바라보지 않는 시스템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 고찰했다.

엔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일부일처제는 착취사회의 제약 밑에서 형성되어 제도적으로 고착되었고, 한 성에 의한 다른 성의 압제로서 부부가 법률상 동등해졌을 때 비로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배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sup>

하지만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주장은 엔겔스와 다르다. 보부아르는 UN이 모든 국가가 남녀의 평등을 법적 규정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면서, 그 이후 여성에 대한 억압이 완화되어 가는 듯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법률과 관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4)</sup>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는 성폭력방지법,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습 때문에 현실에서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sup>5)</sup>, 여성혐오<sup>6)</sup> 등이 반복

3) 프리드리히 엔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옮김, 아침, 1995, p.88-100

4) 시몬느 드 보부아르, 앞의 책, p.158-178

5)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은 한 남성이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성 6명은 보내고 여성을 살해했다. 그는 '여성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범행 동기를 직접 밝혔다.

6) 여성혐오를 정의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문자 그대로 여성을 싫어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2012)는 '여성혐오는 여성을 타자화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성차별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2016)가 여성혐오는 '여성을 여성으로 규범화, 일반화하려는 모든 시도'라 규정하고 있

되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와 달라졌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 역할, 노동환경, 일상, 패션에서도 여성에 대한 억압이 스며있다.

고정화된 성 역할을 발트라우트 포슈(Waltraud Posch)<sup>7)</sup>는 『몸 숭배와 광기』에서 “성적인 특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sup>8)</sup>라고 말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 역할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부모들은 갓난아이들에게서 ‘강한 아들’과 ‘예쁜 딸’을 발견하려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장난감은 같은 장난감이어도 남아용과 여아용이 따로 출시되고 있다. 또한, ‘소년놀이’는 항상 거칠고, ‘소녀놀이’는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으로 구성된다. 더구나 아이는 자기의 성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면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특질을 답습하면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은 관습의 힘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sup>9)</sup>

법률과 관습의 격차는 노동환경과 육아에서도 드러난다. 법적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여성의 육아에 대한 부담은 줄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의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직장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기꺼이 받아들이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육아를 부담하는 몫이 크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이다. 25~29세와 40대의 여성 고용률에 비해 결혼, 임신, 육아로 경력단절이 생기는 30대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sup>10)</sup>

이러한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소설도 등장하게 되었다. 소설가 한강은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에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주인공은 남성 중심의 사회를 뜻하는 것으로 묘사된 육식을 거부하고, 남성 중심의

---

다. 정인경(2016)도 여성혐오가 여성에 대한 비하, 노골적인 성적인 욕설, 여성가족부에 대한 희화화, 페미니스트에 대한 적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김보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여성혐오 담론의 사회적 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p.6)

7) 발트라우트 포슈는 오스트리아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포슈는 『몸 숭배와 광기』에서 미의 숭배를 둘러싼 현상에 관하여 원인과 진단,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8) 발트라우트 포슈, 『몸 숭배와 광기』, 조원규 옮김, 여성신문사, 2004, p.117

9) 발트라우트 포슈, 앞의 책, p.117-123

10) 통계청,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6.06.28

사회를 거부하려하고 손목에 자해를 시도할 만큼 온몸으로 거부 반응을 표출한다.

격차는 패션과 일상에서도 발견된다. 본인은 오늘날의 옷이 몸매를 이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의 패션은 “남성응시”를 의식한 성적 도구로 다루어져 왔다. 즉, 성적 억압과 남성의 대상물로서의 여성의 위치에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수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져 왔다는 것이다.<sup>11)</sup>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발트라우트 포슈는 여성의 몸이 항상 평가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의 삶과 역사는 이상적 아름다움이라는 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사회, 정치적 개념이 반영되는 사진술, 영화매체가 외모를 담아낼 수 있는 매체로 발전하면서 외모 자체의 의미가 커졌다고 주장한다.<sup>12)</sup>

더불어 본인은 외모를 담아내는 매체가 텔레비전, 인터넷,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 또한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이 매체를 통한 광고는 몸매를 보정하는 기능의 속옷과 압박 스타킹을 대중들에게 강조하여 여성들의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의 응시로 강조된 속옷과 옷을 소비하다 보니 이제는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면 뒤쳐진 사람이라는 수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응시와 관습적인 면도 신경을 쓰며 자신의 옷과 속옷을 선택하는 추세가 되었다. 이렇게 법률적인 것과 다르게 관습으로 인해 아직도 여성은 일상에서 억압을 경험한다.

## 2) 신체를 억압하는 일상용품과 여성용품

본인이 작품에서 사용한 오브제는 일상용품과 여성용품이다. 그 오브제에는

---

11) 김은실, 「페미니즘이 1990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26

12) 이희원, 이명호, 윤조원 외 지음, 『페미니즘 : 차이와 사이』, 문학동네, 2011, p.67

사회와 남성으로부터 받는 강요와 억압이 내재되어있다.

오브제는 일반적으로 물건, 물체, 객체 등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이나, 미술에서는 주제에 대응하여 일상적 합리적인 의식을 파괴하는 물체 본연의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sup>13)</sup> 즉, 예술 작품속의 오브제는 작가의 표현 의도에 따라, 본래의 기능 이외에 변화하고, 혹은 조합되면서 작가의 표현 도구이자, 의미를 담고 있는 일종의 언어이다.<sup>14)</sup>

본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과 오브제를 끌어와 일반화시킨 사물의 용도를 지우고 본인이 경험한 오브제의 기능을 드러냈다. 예를 들면, 본인은 사무용 테이프와 여성의 신체를 조이는 여성속옷, 여성용품을 사용하여 억압을 나타내려 했다. 왜냐하면 사무용품 중 하나인 테이프를 【작품 1~5】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에 쓰인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신체를 묶는 용도로 쓴다면 일상 생활에서도 억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 6】 〈Run like a girl〉의 경우, 여성용품은 여성이 피해야하는 오브제로 묘사했다. 이 작품에서 여성용품은 여성의 신체를 조이고 압박하여 억압이 신체까지 확장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억압이 여성속옷에도 나타난다는 것처럼 사회가 신체와 일상까지도 억압한다는 생각은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언급한 신체에 대한 권력의 규율화 기술과 장치와 유사하다. 그는 권력이 신체를 빈틈없는 통제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신체가 권력의 기술과 전략에 따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부속품처럼 된다고 설명한다.<sup>15)</sup>

또한 본인은 현재 우리의 일상이 푸코가 설명한 ‘판옵티콘’<sup>16)</sup>의 체제와 맞닿

---

13)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오브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4821&cid=42642&categoryId=42642>)

14) 서정배, 「조형예술에서 일상 오브제(objet)의 표현에 관한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제18권 2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7, p.266

15) 오생근, 『미셸 푸코와 현대성』, 나남, 2013, p.128-129

16) 제레미 벤담이 1791년에 고안한 원형감옥으로 감시자가 중앙 감시탑의 한 지점에서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원통모양의 건물이다. (오생근, 『미셸 푸코와 현대성』, 나남, 2013, p.37)

아있다고 느꼈다. 『미셀 푸코와 현대성』에서 판옵티콘의 사회는 개인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사회이며,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모든 개인의 행동이 자료화되는 사회를 디지털 판옵티콘의 사회로 명명할 수 있다고 했다.<sup>17)</sup> 우리의 일상에서 판옵티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라고 생각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개인이 SNS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유저들의 일상을 볼 수 있다. 유저들의 SNS활동으로 우리는 개인의 활동반경, 생활, 기호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유저들은 다른 수많은 유저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비판받을 수도, 공감을 얻어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유저는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의 일상은 네트워크 공간에 드러나고 있지만 날 보고 있는 실체는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점이 판옵티콘의 기능과 유사하다. 【작품 7】〈Text Attack〉은 SNS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면서 생기는 타인의 시선이 본인의 일상을 통제한다고 느껴 시작된 작업이다. 이러한 측면은 판옵티콘처럼 타인의 시선을 절대 피할 수 없으며, 작품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신체 위로 지나가는 텍스트로 전환시켜 보여주고 있다.

## 2. 작품 표현 방법

### 1) 테이프를 이용한 신체 억압의 표현

본인은 사회의 억압을 신체와 연관시켜 나타냈다. 작품에서 억압은 여성을 테이프로 신체를 묶는 방법과 그 방법에서 확장된 텍스트가 신체를 뒤덮는 방법, 신체를 압박하는 속옷으로 표현됐다.

---

17) 오생근, 앞의 책, p.136-137

억압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대표적인 【작품 1~5】〈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시리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시리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오브제는 ‘테이프’이다. 본인은 테이프가 본드나 풀과 다르게 신체를 구속하는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테이프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신체를 배경과 함께 묶는다면 신체에 대한 억압과 일상이 통제된 상황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배경에 뒤덮인 테이프가 동시에 신체를 덮는 방법으로 억압을 여성이 사회에서 개별적, 독자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표현했다.

두 번째, 오브제를 이용해 신체를 묶는 표현은 텍스트로 신체를 묶는 표현으로 확장된다. 본인은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남겨진 글과 댓글이 각 유저의 일상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길지 않은 한 줄짜리 댓글이지만 수십 개의 댓글로 인해 본인은 “일상과 정체성마저 다른 사람에게 의해 통제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작품 7】〈Text Attack〉은 SNS의 기능으로 인해 일상이 무수한 타인들에게 노출되고, 사적인 일상까지 지배받은 모습을 SNS 댓글이 신체 위로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됐다. 작품 속 댓글의 형태는 【작품 1~5】〈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에서 등장하는 테이프의 형태가 확장된 것이다. 테이프로 신체를 묶기 위한 장치가 SNS 댓글을 테이프처럼 띠의 형태로 만들어 신체를 통제하는 장치로 쓰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본인은 텍스트에 뒤덮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텍스트 작가로 ‘박호은 작가’가 있다. 본인이 텍스트로 신체를 억압하는 것과 달리 박호은 작가는 말이 모이면 칼보다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작품에서 언론, 현수막, SNS 등 미디어 매체에서 수집한 텍스트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잘못된 왜곡과 몰이해를 보여준다. 박호은 작가는 말과, 말로 말미암은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 떠도는 말을 확대·재생산 하는 언론과 하루에도 수천수만 건 올라오는 SNS의 개인 혹은 집단의 발언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 전 남긴 말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 부당하거나 권

위적으로 느껴지는 언사는 그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는 이것을 예술의 틀 안에서 작업으로 남긴다.<sup>18)</sup>

## 2) 여성을 공격하는 오브제와 저항하는 행위

본인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여성용품은 여성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용품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여성을 공격하는 용품으로 대입시켜 관찰했다. 오브제로 사용한 여성용품은 신체를 억압하고 의식까지 통제한다고 보았다. 속옷은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성의 신체를 변형하는 속옷이 있다. 신체를 변형하는 속옷은 여성의 몸매를 이상적으로 규정된 몸매로 변화시키려 부추긴다. 이러한 부추김으로 여성은 타인의 응시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성성이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체형을 변형시키는 속옷은 남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규정할 만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규정된 성 정체성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작가로는 ‘루이스 부르주아’가 있다. 부르주아는 그녀의 작품 〈나이프 여인(Femme Couteau)〉(1969)<sup>19)</sup>처럼 양성이미지에서 성별관계를 전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자연적이며 배타적인 범주로 다루지 않았다. 다시 말해 부르주아는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공격, 거침, 활동성,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정, 순종, 사랑이라는 본질적 용어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녀의 성적 이미지에서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은 가변적이고 매우 복잡한 것으로 해석되었다.<sup>20)</sup> 또, 사회가 규정한 성 정체성을 거부하

18) 네이버 ‘헬로! 아티스트’, ‘박호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493&cid=59154&categoryId=59154>)

19) 부르주아의 세계에서 상반되는 성은 때로 서로 융합을 이루어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변형되면서 양성구유가 된다. 대리적으로 제작된 〈나이프 여인(분홍색 대리석, 18.9x67x12.4cm, 1969)〉은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맞물려 있는 상태를 추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으로 이원적인 세계가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상태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루이스 부르주아 : 기억의 공간』, 삶과꿈, 2009, p.20-21)

20) 국립현대미술관, 『루이스 부르주아 : 기억의 공간』, 삶과꿈, 2009, p.27

는 ‘송상희’ 작가가 있다. 송상희 작가의 <착한 딸이 되기 위한 몸짓 - 바른 자세로 앉기>(2001)<sup>21)</sup>는 가정과 학교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겪은 작가의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출발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학교, 사회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강요받아온 그녀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고문기구와도 같은 의자를 통해 이것이 예의범절이란 이름 아래 강요된 이데올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sup>22)</sup>

본인은 ‘나는 왜 남성보다 불편한 속옷을 착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며 테이프와 텍스트가 신체를 구속하는 것처럼 신체를 압박하는 속옷에 주목했다.

【작품 6】 <Run like a girl>은 작품 형성 배경에서 언급한 ‘남성의 응시’와 연관되어 속옷이 여성 신체의 억압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등장한다. 여성의 속옷은 남성의 속옷과 다르게 가슴을 키워주고, 모아주며, 허리를 얇게 만들어주는 신체적 변형을 목적으로 하는 속옷이 많다. 본인은 이러한 속옷을 착용하면서 정해진 사이즈에 몸을 구겨 넣어 가둔다고 느꼈다. 따라서 여성의 속옷은 테이프로 신체를 묶는 효과처럼 신체를 압박하는 오브제로 쓰였다.

또한, 【작품 6】 <Run like a girl>에서 의식과 신체를 통제하며 남성이 규정한 여성성을 상징하는 속옷, 여성용품, 피임약을 뛰어넘고 피하는 놀이를 한다. 행위는 작가의 생각을 신체로 표출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여성(본인)의 신체는 순종적인 신체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까지 규정하려하는 사회를 저항하는 신체로 묘사했다. 그리고 신체를 향해 유동적으로 날아오는 오브제를 뛰어넘고 피하는 행위는 게임 속 캐릭터가 게임 오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날아오는 장애물을 필사적으로 피하는 것과 닮았다. 이렇듯 작품에서는 여성을 억압하는 장치들을 저항하는 본인의 신체를

---

21) 이 작품은 2001년 대안공간 풀에서 ‘기계들’이란 제목으로 열린 개인전에서 발표한 <착한 딸이 되기 위한 몸짓> 연작 중 하나이다. <착한 딸이 되기 위한 몸짓 - 바른 자세로 앉기>는 작품을 제작하게 된 배경과 개념을 밝힌 보드 앞에 전기의자처럼 허벅지와 발목을 죄는 족쇄가 부착된 금속의자를 배치한 작품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늘의 미술가를 말하다2』, 학교재, 2010,p.218)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늘의 미술가를 말하다2』, 학교재, 2010,p.218

등장시키며 게임을 통해 표현하려 했다.

### 3) 놀이와 반복적인 패턴, 색채

본인의 작품에서 놀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작품 6】〈Run like a girl〉의 경우 게임 캐릭터가 장애물을 피하려는 게임과 닮았고, 【작품 8】〈be safe〉는 관객이 작품의 오브제를 가지고 놀 수 있다. 【작품 8】〈be safe〉는 콘돔을 오브제로 썼다. 성교육이 과거보다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콘돔은 아직도 ‘쑥스럽다, 어색하다, 민망하다, 멋쩍다.’는 인식이 있다. 작품에서 콘돔은 본래의 형태가 아닌 공기를 채워 풍선처럼 사용했다. 전시장 방의 천장과 벽, 바닥을 채워 관객은 작품을 관람할 때 자신의 몸에 스치는 콘돔을 피하고 스스로 만질 수 있으며 바닥에 놓인 콘돔 풍선을 발로 찰 수 있다. 관객이 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는 놀이와 닮았다. 역사학자, 문화학자인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모든 놀이는 자발적 행위이다. 명령에 의한 놀이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다.”라고 말한다.<sup>23)</sup> 따라서 【작품 8】〈be safe〉를 경험한 관객은 낯설고 서먹했던 콘돔을 놀이를 통해 친해지며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반복적 패턴이다. 【작품 1~5】〈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작품 7】〈Text Attack〉 등의 작품들이 반복적 패턴의 요소를 띤다. 패턴을 반복하면서 【작품 1~5】〈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의 테이핑 작업에서는 수평적인 연속 구조로 띠 형태의 테이프를 사용했고, 패턴의 반복으로 인해 테이프의 기능이 강조되었다. 또한 테이프를 규칙적인 간격으로 신체에 붙이는 방식은 행위에 통제력이 개입되어 있다. 같은 간격으로 붙인 테이프는 기계적이고 그물망 같은 사회와 닮았다. 그리고 이 반복적 패턴은 작품에 감정적인 요소를 억제하며, 신체를 결박한 테이프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무감각해진 현대인을 그려냈다. 더불어 【작품 7】〈Text Attack〉에서 신

23) 요한 하위징아, 『(놀이하는 인간)호모 루덴스』, 이종인 옮김, 연암서가, 2010, p.41

체 위로 불규칙적으로 지나가는 덧글의 반복적 패턴과 덧글의 패턴이 추가될 때마다 같은 음으로 울리는 알림음은 【작품 2】〈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과 마찬가지로 SNS와 타인의 일상을 침범하여 개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개인을 무력하게 만든다.

세 번째 특징은 색채이다. 색은 본인이 느낀 비정상적인 사회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쓰인 방법이다. 【작품 1~5】〈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에서 사회의 영향과 권력을 형광색 테이프로 묘사하였다. 작품에서 테이프의 색은 형광 주황색으로 눈에 편하지 않은 색상이다. 형광색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장은 다른 색에 비해 긴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눈에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를 갖는다.<sup>24)</sup> 그러므로 작품 속 형광색은 눈이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현란하며 눈에 잘 띄고, 인물(본인)보다 배경과 인물을 묶은 테이프가 눈에 더 잘 띈다. 이에 반해 언제나 사회의 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에 무감각해진 인물은 무채색에 가까워 보인다.

이어서 【작품 9】〈Red jungle〉에서 색은 자연스럽지 못한 여성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 본인은 평소에 사회도 자연의 순환 구조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에 사는 동물들은 서로 공존하기 위해 약육강식으로 최소한 밸런스가 유지되지만, 사회는 어느 상황에서든 상식 밖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갑을관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사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전환되었다.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여성을 자연으로 비유하여 자궁 속 자연을 붉은색으로 뒤덮이게 표현했다.

---

24) 백현주, 「형광색으로 인지되는 색채와 재질의 시각적 무게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5, p.5

### 3. 작품분석



【작품 1】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1

## 【작품 1】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1

연도 : 2017

크기 : 59.4 x 84.1(cm)

재료 : 인화지에 프린트

### 제작방법

1. 흰 벽에 테이프를 채워 붙인다.
2. 테이프로 채워진 배경 앞에서 포즈를 취한다.
3. 서 있는 포즈를 취한 사람 위로 배경과 같은 색의 테이프가 지나가도록 붙인다.
4. 이때, 테이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같은 간격으로 수평에 맞춰 붙인다.
5. 테이프를 모두 붙인 후 촬영한다.

### 작품설명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고찰을 하던 중, 사회가 정체성을 만드는 행동이나 생각을, 특히 여성의 행동이나 생각을 사회가 강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운 가족부터 연인관계까지 나를 통제한다. 개인 한 명, 한 명의 존엄보다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갑과 거대한 사회의 힘을 더 중요시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었고, 을에 해당하는 다수의 여성들은 통제된 인형같은 인간으로 전락했다. 작품 속 인물은 일상 속의 한 장면 같지만, 테이프가 신체 위로 지나가면서 움짱달짝 못하게 되어 박제된 인형처럼 포즈를 취한다. 배경과 함께 묶여있는 모습을 마치 억압적인 사회의 상황에 무감각한 듯 연출했다.



## 【작품 2】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2

연도 : 2017

크기 : 59.4 x 84.1(cm)

재료 : 인화지에 프린트

### 제작방법

1. 앞 서 촬영한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1】 사진을 편집 프로그램에 옮긴 후, 테이프 부분을 선택하여 삭제한다.
2. 삭제된 부분에 SNS댓글들로 채워 완성한다.

### 작품설명

앞 서 기재한 작품 1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1】 과 같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곰곰이 고찰을 하던 중, SNS가 본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고 느꼈다. 한번은 나의 일상에 대한 사진을 업로드한 뒤 나의 SNS계정을 훑어보았다. 추억으로 남겨진 사진들을 보며 사진에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 본인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심지어 외국인 유저(user)도 있었다. 댓글에서 본인은 그들의 취향을 따르고 있었다. 작품에서 테이프 대신 채워진 텍스트는 본인의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텍스트들이다. 이 텍스트들을 읽는 관람객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마주한다.



【작품 3】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3

### 【작품 3】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3

연도 : 2017

크기 : 59.4 x 84.1(cm)

재료 : 인화지에 프린트

#### 제작방법

1. 흰 벽에 테이프를 채워 붙인다.
2. 테이프로 채워진 배경 앞에서 포즈를 취한다.
3. 커피 한 잔을 손에 쥐어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포즈를 취한 사람 위로 배경과 같은 색의 테이프가 지나가도록 붙인다.
4. 이때, 테이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같은 간격으로 수평에 맞춰 붙인다.
5. 테이프를 모두 붙인 후 촬영한다.

#### 작품설명

앞 서 언급한 억압을 일상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여 촬영했다. 작품 속 인물은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일상 속의 한 장면 같지만, 테이프가 신체 위로 지나가면서 움푹달짝 못하게 되어 여성을 박제된 인형처럼 표현했다. 작품 속 여성은 오래 전부터 억압에 노출되어 일상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신체까지도 무감각해진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동시대 여성 중 한 명으로 보인다.



【작품 4】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4

#### 【작품 4】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4

연도 : 2017

크기 : 100 x 150(cm)

재료 : 캔버스에 프린트

#### 제작방법

1. 흰 벽에 테이프를 채워 붙인다.
2. 테이프로 채워진 배경 앞에서 포즈를 취한다.
3.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포즈를 취한 사람 위로 배경과 같은 색의 테이프가 지나가도록 붙인다.
4. 이때, 테이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같은 간격으로 수평에 맞춰 붙인다.
5. 테이프를 모두 붙인 후 촬영한다.

#### 작품설명

작품 속 인물은 책상 위에 발을 올린 채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 스마트폰에 있는 SNS, 앱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앱에는 사생활을 노출될 수도 있는 기능이 있다. 앱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사용자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본인은 처음 앱을 사용할 때는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며 꺼려했지만, 결국 중독되어 어느 곳에서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는 배경과 함께 묶여있는 모습을 마치 무감각한 듯이 표현했다.



【작품 5】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5

## 【작품 5】 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5

연도 : 2017

크기 : 128 x 72(cm)

재료 : 캔버스에 프린트

### 제작방법

1. 흰 벽에 테이프를 채워 붙인다.
2. 테이프로 채워진 배경 앞에서 포즈를 취한다.
3. 책상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 포즈를 취한 사람 위로 배경과 같은 색의 테이프가 지나가도록 붙인다.
4. 이때, 테이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같은 간격으로 수평에 맞춰 붙인다.
5. 테이프를 모두 붙인 후 촬영한다.

### 작품설명

앞 서 언급한 억압을 일상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여 촬영했다. 작품 속 인물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노트북도 미디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억압을 당하며 혹은 상대방을 억압한다. 본인이 억압을 당하는 경우는 각종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반응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 대한 사진을 업로드 하면 올라오는 댓글과 타인의 평가, 옷 스타일과 화장품, 아이새도 조합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타인의 답변에 의해 나의 일상과 취향이 조종된다. 한 편, 본인이 타인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다. 앞 서 이야기한 상황과 반대

로 본인이 SNS나 커뮤니티, 일상에서 타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본인의 태도가 그 예이다. 더불어 쇼핑몰이나 인터넷으로 장을 본 경우, 본인은 실시간 택배 조회를 이용하여 택배 기사가 어디 있는지, 택배가 언제 도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택배 기사를 감시하는 입장이 된다. 작품에서는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상이 조종되고 자신이 타인을 억압하는 상황이 당연한 듯 무감각하게 표현했다.



【작품 6】 Run like a girl

## 【작품 6】 Run like a girl

연도 : 2017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단채널영상, 2분 55초

### 제작방법

1. 영상을 찍을 장소를 탐색한다.
2. 일상용품을 뛰어넘고 피하는 행위를 연출하여 촬영한다.
3.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촬영본 위에 일상용품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배치한다.
4. 동영상을 재생한다.

### 작품설명

‘여성이 여자답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있던가?’, ‘애초에 여자답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본인이 자신에게 질문해보았다. “여자답게 좀 행동해.” 라는 말은 굉장히 남성사회에 물든 사회 구성원들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여자답다’는 말 자체도 여성을 억압하려는 남성과 사회가 만든 언어라고 느꼈다. 일상에서 쓰는 언어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일상을 돌아봤을 때, 본인을 압박하는 장치들은 정말 가까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속옷, 여성용품 그리고 미디어 매체였다. 물론 속옷은 보호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코르셋같이 신체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신체를 불편하게 한다. 작품에서 여성은 가슴과 흉곽을 조여 근육통을 유발하는 브라지어, 사타구니와 허리를 조이는 팬티, 다리 전체를 감싸는 스타

킹, 발을 무리하게 변형시키고 하이힐, 호르몬을 조절하여 생리주기를 교정하고 임신을 막는 피임약, 텔레비전, SNS가 신체에 닿지 않길 바라며 뛰어넘고 피한다. 신체를 통제하는 오브제와 행위가 합쳐진 이 작품은 오브제를 향한 행위를 통해 여성의 신체는 순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여자답게 좀 행동해”처럼 신체와 정신까지 규정하려는 사회에 저항하려는 의지를 신체의 행위로 묘사했다.



【작품 7】 Text Attack

## 【작품 7】 Text Attack

연도 : 2017

크기 : 가변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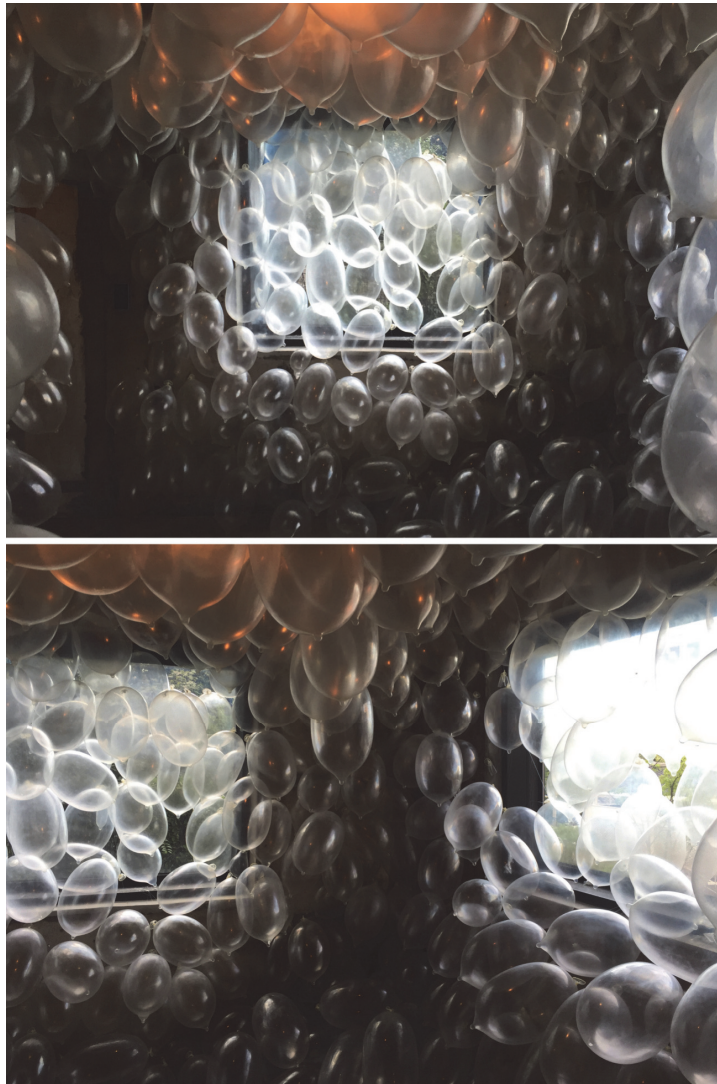
재료 : 단채널영상, 3분 49초

### 제작방법

1. 본인의 일상이 담긴 장소들을 탐색하고 일상의 모습을 찍는다.
2. 본인의 SNS 계정에 친구, 지인, 알지 못하는 다른 SNS 유저들이 남긴 댓글을 수집하여 띠의 형태로 편집한다.
3. 일상의 모습을 찍은 영상 위에 띠의 형태로 편집한 댓글들을 지나가게 한다.
4. 댓글은 영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점진적으로 많아지게 한다.
5. 댓글이 영상위로 추가될 때 마다 SNS 알림음이 울리도록 사운드를 편집한다.

### 작품설명

신체를 구속하는 용품들도 있지만 일상과 생각 자체를 구속하는 매체도 있다. 본인은 그 매체를 인터넷, SNS의 댓글 문화라고 생각했다. 각자 개인의 표현을 자유롭게 한 것이지만 댓글은 상대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SNS유저(user)는 다른 유저가 올린 게시물에 ‘댓글’과 ‘좋아요’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댓글과 좋아요의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본 유저는 타인의 반응을 더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취향과 성향에 타인의 취향과 성향을 가미하여 게시물을 올리게 된다. 본인은 이 상황에 중독되었고 SNS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일상이 타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작품 8】 be safe

## 【작품 8】 be safe

연도 : 2017

크기 :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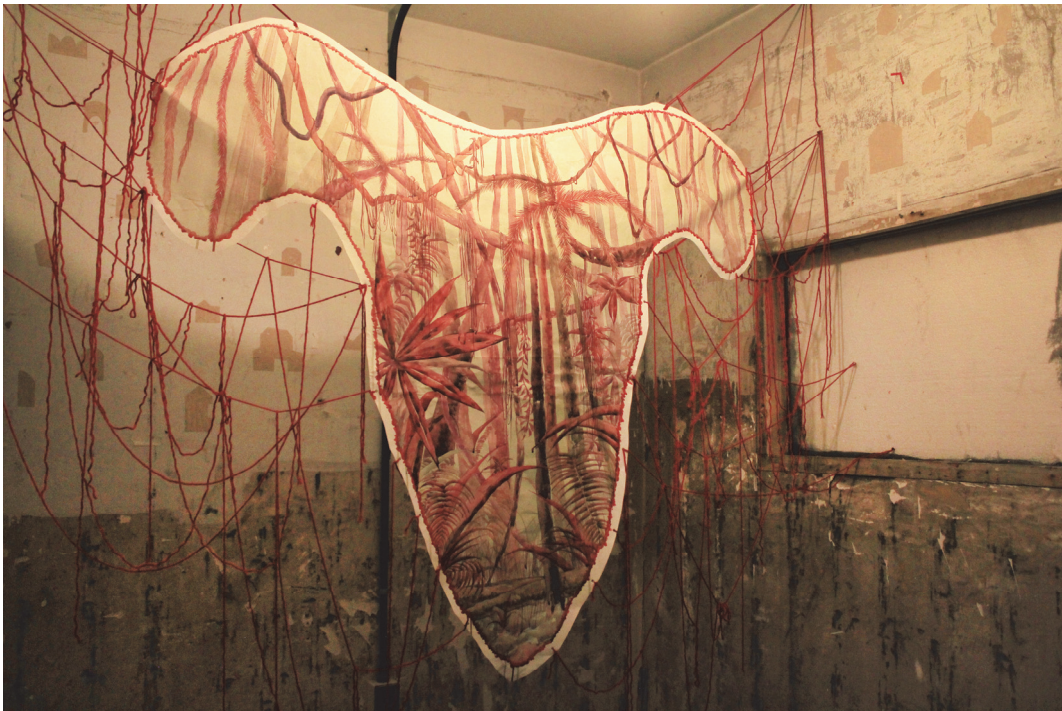
재료 : 콘돔

### 제작방법

1. 전시장에서 작품을 설치할 곳을 탐색한다.
2. 작품 규모에 맞는 많은 양의 콘돔과 콘돔에 공기를 주입해 줄 인플레이터 (펌프)를 준비한다.
3. 공기가 주입된 콘돔의 입구를 풍선처럼 묶는다.
4. 입구를 묶은 콘돔을 천장, 바닥, 4면의 벽에 채울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작품설명

콘돔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콘돔을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 그래도 여러 사람 앞에서 콘돔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과 콘돔을 사는 행동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 민망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변사람과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성교육이 과거보다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콘돔은 아직도 ‘쑥스럽다, 어색하다, 민망하다, 멋쩍다.’는 인식이 있다. 작품에서 콘돔은 본래의 형태가 아닌 공기를 채워 풍선처럼 사용했다. 콘돔을 전시장의 사방에 채운 방에 들어가면서 관객은 자신의 몸에 스치는 콘돔을 피하고, 스스로 만질 수 있으며, 공중에 둥둥 띄워 놀 수 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콘돔 풍선을 축구공을 차듯 발로 찰 수 있다. 관객은 콘돔으로 가득찬 방에서 콘돔으로 놀며, 전보다 낯설고, 서먹했던 콘돔과 친해지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작품 9】 Red Jungle

## 【작품 9】 Red Jungle

연도 : 2017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캔버스에 수채, 실

### 제작방법

1. 캔버스 위에 자궁 속에 있는 정글을 스케치한다.
2. 채색은 붉은색 계열로 채색한다.
3. 채색을 마친 그림을 여백을 남겨두고 재단한다.
4. 재단된 캔버스의 여백에 구멍을 뚫고 빨간색 실을 묶어 고정시킨다.
5. 전시장에 그림을 위치시킬 곳을 탐색한다.
6. 전시할 곳에 실을 벽에 묶어 그림을 공중에 매단다.

### 작품설명

본인은 평소에 어른들에게 언제나 조심히 다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더불어 본인의 주변 사람들도 ‘여자니까 조심히 다녀야 해’라고 말한다. 본인은 ‘왜 여자라는 이유로 조심히 다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저기 날아다니는 새도 암컷이라고 조심히 날아다니지 않을텐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자연이나 사회나 같은 순환구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본인이 피부로 경험한 사회는 자연처럼 공존하기 위해 약육강식으로 밸런스가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라 그저 권력과 힘에 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본인이 경험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의 구조와 상황을 품에서는 검붉게 묘사한 자연과 자궁 형태의 캔버스, 캔버스를 매단 붉은 실을 등장시켜 비유했다. 관객은 전시장에서 커다란 자궁 형태의 캔버스에 그려진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검붉은 자연을 볼 수 있는데, 붉은 실이 커다란 캔버스를 잡고 있다.

### Ⅲ. 결 론

본인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보부아르와 포슈가 이야기하는 억압을 경험하여 여성의 일상생활 깊숙이 억압이 스며든 사회적 현상에 대해 고찰했다. 억압은 법률적인 것과 다르게 관습으로 인해 가정환경, 노동환경, 일상, 패션에서 발견됐다. 특별히 본인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과 여성용품을 주목했고, 본인이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을 일상생활용품과 여성용품을 통해 억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작품 1~5】〈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은 테이프로 신체를 묶어 여성이 사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나타냈다. 더불어 【작품 7】〈Text Attack〉는 텍스트가 테이프로 전환되면서 신체를 뒤덮게 되었다. 신체를 공격하는 오브제는 【작품 6】〈Run like a girl〉에서도 볼 수 있었다. 작품에 쓰인 여성속옷과 여성용품은 여성의 신체를 변형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이 공격적인 오브제를 저항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여성은 오브제를 뛰어넘거나 피하며 게임을 하는데, 이 특징은 【작품 8】〈be safe〉에서도 드러난다. 관람객은 이 작품이 설치된 전시장 안에서 콘돔을 가지고 놀면서 낯설었던 콘돔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색체를 통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의 상황을 표현했다. 【작품 9】〈Red jungle〉에서는 자궁 형태의 캔버스에 검붉게 물든 자연을 묘사했다.

본 논문을 마치며 자신의 작품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연구함으로써 본인의 작업 계기, 표현 방법 등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여성이 사회와 남성에게 억압받는 원인과 사회뿐만 아니라 여성 또한 왜 각성해야 하는지 더 파악하고, 그 길이 한 쪽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까지 확장되어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작품을 더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국립현대미술관, 『루이스 부르주아 : 기억의 공간』, 삶과꿈, 2009
- 오생근, 『미셸 푸코와 현대성』, 나남, 2013
- 이희원, 이명호, 윤조원 외 지음, 『페미니즘 : 차이와 사이』, 문학동네, 2011
-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늘의 미술가를 말하다2』, 학고재, 2010
- 발트라우트 포슈, 『몸 숭배와 광기』, 조원규 옮김, 여성신문사, 2004
- 시몬느 드 보부아르, 『제2의성』, 이희영 옮김, 동서문화사, 2009
- 요한 하위징아, 『(놀이하는 인간)호모 루덴스』, 이종인 옮김, 연암서가, 2010
-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옮김, 아침, 1995

### 《학술지 논문》

- 서정배, 「조형예술에서 일상 오브제(objet)의 표현에 관한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제18권 2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7

### 《학위 논문》

- 김민정,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품세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은실, 「페미니즘이 1990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백현주, 「형광색으로 인지되는 색채와 재질의 시각적 무게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기타》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네이버 '헬로!아티스트',  
<http://terms.naver.com/list.nhn?cid=59154&categoryId=59154&mobile>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 ABSTRACT

## Study of visual expression on women's repression

- On the foundation of my work -

Jung, Hwajung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report the results on an overall research on the works that I have done since 2017. I focused on 'women living in contemporary society' and expressed the push and repression that women experience in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my work.

Women and men live in a society of coercion and repression. However, women feel more uncomfortable than men. Because repression is also manifested in 'Gab-*eur*' relationships and women tend to be '*eur*' than men. The Gab-*eur* relationship appears to range from a close person to a distant person, such as a family and a lover, or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rsons. And this relationship is that people with power try to control weak people, including women and their environment. As a result, due to a social phenomenon that forces one side to force, repression is revealed in the body, everyday life, daily items, and women's items used by women. I

felt uncomfortable living in this society as a woman. I have focused on the society in which coercion and oppression are revealed through Gab-eur relationship and noted the status of women living in such a society. I appeared my personal experience to work as a woman then I expressed the experience through the body of a bound woman, play to avoid objects, repetitive patterns and colors.

In chapter 1, I introduce the research purpose and method.

In chapter 2, first, I describe the repression of women I received through soci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of women 's repression of Simone de Beauvoir, Friedrich Engels, Waltraud Posch. And I described the background of the art work by describing the objects of women 's specialty items, which express the physical oppression through the view of the social surveillance system claimed by Michel Foucault. Second, I examined the visual expression of repression through the body of the tied woman, text passing over the body, a game in which women 's items appeared, playing and repetitive patterns, color expressions in my work.

In chapter 3, I summarized the study and work, and sought the direction of future work.